목포 점빵에서 마술공연 한다고요?

가수 말로

점빵전야제 공연팀 서커스 디랩.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제공〉

확 달라진 '제21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참기름 가게 재즈콘서트·씻김굿
장인의 거리에선 '손맛 페어'
마임·인형극·사진전 등 다채
26~28일 수문로 일대 상가에서

목포 원도심의 오래된 '점빵'이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방앗간에서는 참기름을 짜는 동안 근사한 콘서트가 열리고, 서점에서는 줄을 이용한 재미난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극단갯돌(대표 문관수)이 주관하고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이사장 박석규)가 주최하는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풍부한 문화자산을 갖고 있는 목포의 대표적 문화 행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가 됐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신명을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21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올해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한다.

올해는 기존 거리축제를 벗어나 축제기간 동안 목포 수문로 상가점포 일대를 주무대 삼아 '점빵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제가 열리는 수문로는 80년대 목포의 번화가로 이름을 날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점빵 전야제, 수문로 손맛 페어, 점빵 공연, 참기름 콘서트, 수문로 옛 사진전, 목포 로컬스토리, 굿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개막놀이'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땀 흘려 촬영했던 시민영화 '수문로연가' 시사회가 축하공연과 함께 시민배우들이 유쾌한 레드카펫 무대를 선사한다. '폐막놀이'는 남교 공영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군구마를 구워 먹으며 진행된다.

'점빵 전야제'와 '점빵 공연'은 킬러 콘텐츠다. 꽃집, 포차, 갤러리, 카페, 미용실, 옷집, 죽집, 안경점 등 작은 수문로 일대 점포 안에서 마임, 마술, 인형극,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과 함께한다.

'수문로 손맛 페어'는 축제 측의 야심찬 기획 프로그램이다. 수문로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작게는 40년 많게는 70년 동안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장인의 거리'라 불러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손기술 장인들이 즐비하다. 시민과 관광객이 거리와 점포를 관람·상가 이용 시에는 10% 할인을 해주는 기획행사를 마련했다.또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수문로의 모습을 담은 '수문로 옛 사진전'이 수문당 카페에서 전시된다.

수문로 방앗간에서 열리는 '참기름 콘서트'는 직접 국산 참기름을 짜는 동안 공연과 함께 향기를 느끼는 시간이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재즈가수 말로가 초청됐으며 씻김굿 명인 강은영의 진도북놀이, 허튼춤의 명인 정승천의 못난이 춤 등의 공연도 열린다.

올해 '목포 로컬스토리' 프로그램은 '진솔이와 놀아요 동네 한 바퀴'로 정했다. 최근 근대음악극 청춘 디바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목포의 샛별 뮤지컬 배우 하진솔이 여행자들과 함께 목원동 일대를 돌며 동네 이야기와 콘서트를 갖는다.

한편,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2015년 문광부 주최 '대표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에 선정돼 최우수축제 등급을 받았으며 6년 연속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선정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불 미로 창작플랫폼 작가들의 '삶의 가치'

국제시각문화예술협 26일까지 무등갤러리
프랑스 피에르 귀린 24일까지 개인전도

이수지 작 'hn'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가 진행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미로 창작플랫폼 참여작가 전시회가 오는 26일까지 무등갤러리와 미로센터에서 열린다.

'삶의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레지던시에 참여중인 프랑스 초대작가 뤽 티브흐와 피에르 귀린, 한국출신 해외활동작가 안민혁(독일), 이수지(네덜란드)와 함께 광주예술가 김은택·강지수·이한범·정승원·박수만·맥팀이 참여한다.

코로나 이후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의 가치'를 찾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전시에는 2007년부터 교류해온 프랑스 지역예술가들을 초청, 전시와 함께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과의 통해 예술 속의 삶, 프랑스 예술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회도 마련됐다,

판화, 북아트, 회화,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는 피에르 귀린은 오는 24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8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개인전도 연다.

또 뤽 티브흐는 전남대박물관에서 초대전을 열었으며 살레시오 여중에서 '찾아가는 갤러리 스쿨'은 현장 교육도 진행했다.

한편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는 내년부터 광주 지역 작가들을 프랑스와 러시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3월에는 광주지역 판화가들의 프랑스 초대전시와 워크숍, 청소년 체험 행사 등이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양지마을로'

도시개발 제한구역 '불안한 숲'

전남대 박물관 12월 1일까지 김해경전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극에서 다양한 욕망이 생성되는 공간인 도시개발 제한구역을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린다.

전남대학교 박물관은 오는 12월 1일까지 김해경 초대전 '불안한 숲'을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도시개발을 통해 인간 내면에 존재한 욕망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극대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쯤 사유하게 한다.

특히 '양지마을로'의 연작이 눈에 띈다. 우거진 푸른 숲과 대지, 건축폐기물과 낡은 집터라는 소재 간의 대비를 빛바랜 듯한 색채를 더해 실재감을 높였다.

한편 김 작가는 자연과 인간 관계, 사회 문제의 공간을 풍경화로 그리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5인 5색 '사부작 사부작'

휴랑갤러리 30일까지

유미란 작 '행복 바이러스'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LH광주.전남지역본부1층 휴랑갤러리에서 열리는 '사부작 사부작'전은 회화, 치유미술, 도자 작업을 하고 있는 5명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풀어놓은 전시다.

이번 전시에는 안은하·신경임·신선윤·유미란·김기현 작가가 참여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안은하 작가는 치유를 선사하는 식물 그림을 전시하며 신경임 작가는 도자 꽃병을 선보인다.

전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작업하며 만들어낸 결과물로 서로의 수고로움을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먹향 가득' 원묵회 서예전

24일까지 금호갤러리

하영동 작 '秋日偶成'

'먹향기 그윽한 필묵의 향연.'

서예 단체 '원묵회'(源墨會·회장 하영동) 제 39회 서예전이 오는 24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오명섭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무등서예연구원 원생들로 구성된 원묵회는 서예원 개원 이듬해인 1981년 모임을 조직하고 1982년 광주학생회관에서 첫 전시회를 연 후 매년 회원전을 열어왔다.

이번 전시에는 오명섭 원장의 찬조 작품 '고산유수(高山流水)'와 이백의 시를 비롯해 김충남·김민자·문회숙·박재구·정종옥·허남수·황소연 등 70여명의 회원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회원들은 다양한 서체로 정도전,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김인후, 두보, 충무공, 만해 한용운, 이규보 등 선현들의 얼이 서린 글귀를 비롯해 '독립선언서', '금강반야바라밀경'. '추성부' '서경' 등을 쓴 작품을 내놓았다. 초대 일시 19일 오후 5시 30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넴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포도에서 만납시다」|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